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1월 일 (제370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총복 유치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1월 29일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중복 유치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9년 1월 29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 제안 이유

- 작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 클러스터 입지는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만 함
-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선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구상’ 발표로 지방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의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 □ 붙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중복 유치 건의안

작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러스터 입지는 2019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으로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을 앞당길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작년 2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에 충북혁신도시 일원 6개 시·군에 지정 고시한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충북반도체융복합타운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새로운 입지를 정한다는 것은 정책 중복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선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구상’ 발표로 지방을 혼란시키기 보다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의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